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의 재맥락화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정성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수진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부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sjkim07@keis.or.kr)

국문초록

본 논문은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이 시간적 중첩과 공간적 집적을 통해 재맥락화된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은 베를린 도심부 운터덴린덴의 상이한 배경과 성격을 지닌 기억의 장소이고, 분석 과정에서 문화경제학과 기억 연구를 결합하여 공간-기억-가치의 삼중 구조 분석 틀을 구성하고 시간적 축적, 공간적 집적, 담론적 교차, 가치 전환의 네 차원에서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억의 장소들은 상호참조적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과거사에 대한 공적 성찰의 장으로 기능하고, 도시브랜딩과 관광·시민교육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문화자본으로 전화되었다. 연구 결과, 베를린의 도심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가 갖는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과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도심부의 공적 장소 분석에 집중하여 비공식적 기억의 장소나 다른 도시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기억의 장소, 문화자본, 재맥락화, 불편문화유산, 베를린 도심

From Memorial Landscape to Cultural Capital: Recontextualizing Memorial Places in Central Berlin

Chung, Sungyoun Research Associate,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Sujin Associate Research Fellow, Local Economy & Employment Divisio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memorial sites in Berlin's city center have transformed into a complex memory landscape through temporal layering and spatial concentration, and analyzes the mechanism by which this recontextualization converts into cultural capital. The research focuses on diverse memorial sites along Unter den Linden, including imperial monuments, war memorials, and counter-monuments. By integrating cultural economics with memory studies, this study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tripartite structure of space-memory-value. The findings reveal that memorial sites operate as a cross-referential network, where post-unification memorial facilities function as contested heritage, forming a circulatory structure in which political symbols convert into social memory and cultural capital.

Keywords : Place of Memory, Cultural Capital, Recontextualization, Difficult Heritage, Berlin City Center

I. 서론

근대 도시에서 기억의 공간은 단순한 추모의 장소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권력의 상징체계로 작동해왔다. 특히 수도의 도심부는 근대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정당성과 근대화의 성취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었다. 베를린은 이러한 공간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왕권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제국기 기념물, 전쟁 추도시설이 한정된 지역 안에서 중첩되며 근대 도시의 기억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통일을 거치며 이 공간들은 반복적인 파괴와 재건을 겪어왔고, 그 결과 도심부의 기념공간은 단일한 내러티브를 담지하지 못하는 복합적 경관으로 변모하였다. 과거의 정치적 상징들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도심부 전체가 일종의 '기억의 실험장'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한 추도시설(Gedenkstätte)과 기념물(Denkmal)은 서로 인접한 상태로 상호참조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노이에 바헤(Neue Wache)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Mahnmal), 그리고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Denkmal für die Sinti und Roma Europas) 등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건과 기억을 담지만, 하나의 축선(운터텐린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결과적으로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을 이룬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 기념비 개념을 넘어선 집합적 공간의 형식을 보여주며, 공간이 물리적 축적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재조직하고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경관'의 변화를 도시적 기억의 재맥락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념물(Denkmal)'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법적 의미에서의 등록문화재(Baudenkmal)를 넘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모든 유형의 물리적 구조물을 의미한다. 즉, 법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기억을 매개하고 재맥락화하는 모든 공간적 실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극적 사건을 반성과 경고의 형식으로 표상하는 시설은 '경고비(Mahnmal)'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의례 공간으로 작동하는 시설은 '추도시설(Gedenkstätte)'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의 권위적 기억 형식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시설은 '대항기념물(Gegendenkmal, Counter-Monument)'로 정의한다. 종래의 기념물들과 비교했을 때, 대항기념물은 기억의 탈권위화와 비판적 성찰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연구의 범위는 개별 구조물에 한정하지 않고, 거리·광장·건축군 등 복합적 장소성을 지닌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 Place of Memory)'를 대상으로 한다. 기억의 장소는 과거에 대한 집단적 재현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기억과 관련된 물리적·의례적 실천이 수행되는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의 장소'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추상적 측면에서는 기억과 기념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장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상 정의는 Rudy Koshar(2000)가 제시한 문제의식—즉, 19세기 국가주의적 ‘기념비 문화’가 전후 독일 사회에서 ‘기억의 흔적’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동시에 James Young(1992)이 제시한 대항기념물(Gegendenkmal; Counter-monument)이라는 개념¹⁾을 참고하여, 기념 행위를 통해 다시 불러내어지는 집단기억이 권위적 서사로서 고정되지 않고, 비판적 성찰과 사회적 참여의 실천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념물’을 자명한 가치를 드러내는 대상이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의 정치를 통해 끊임없이 의미가 재구성되는 동적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크게 세 영역에서 전개되어왔으나, 각각 특정한 한계를 보인다. 첫째, 건축사 및 도시사 연구는 주로 개별 건축물이나 특정 시기의 정치적 맥락에 집중해 왔다. Benedikt Goebel(2003)은 베를린 중심부의 구조적 변동과 근대적 도시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Laurenz Demps(1996)는 동독 시기 노이에 바헤의 기능 전환을 통해 추도시설의 정치적 의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Akademie der Künste(1993)가 편찬한 Streit um die Neue Wache는 통일 이후 기념공간의 재설계 논쟁을 상세히 다루며, 기념공간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건축물이나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도심부 전체가 형성하는 공간의 상호작용은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둘째, 문화유산 연구는 기념물의 가치 평가와 보존 논리를 발전시켜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새롭게 건립된 추도시설을 다루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추도시설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산가치(Heritage Value)—역사성, 예술성, 희소성—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Dolff-Bonekämper(2021)가 제시한 논쟁가치(Streitwert; contested value)와 같은 우회적 채널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조차 유산으로 인정받는 범주를 확대하자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새로 지어진 추도시설들이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공간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즉, 도시 정체성과 공공 담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방식—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역사학과 기억 연구에서는 독일의 추도시설을 과거사 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이라는 구체적 맥락과 결합하여 분석해왔다. James Young(1993), Sharon Macdonald(2009) 등의 연구는 홀로코스트 기념과 반성적 기억문화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하였으나, 이들 시설이 독일의 과거사 문제라는 특수한 이슈를 넘어 보다 도시 브랜딩, 관광 경제, 국가 이미지 재구성 같은 거시적인 범위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진성(2012)은 왕조 시대의 전통적 유산과 반전·평화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성찰적 공간의 공존이 만들어 내는 ‘혼성적 기억’을 포착하고, 이것이

1) ‘Counter-monument’를 직역하면 반(反)기념물이겠으나, Young이 제시하는 개념은 기념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념비 형식 자체에 저항하여 문제제기하고 성찰을 촉발한다는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대항기념물’이라고 번역하였다.

베를린의 도시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유산과 성찰적 공간의 병존 및 상호작용에 대한 적극적 평가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기념공간 연구를 종합하면, 그 이론적 경향을 크게 네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기념물의 건립 과정, 형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며 국가 권력과 집단 정체성의 관계를 다뤘고(Nora 1989; Connerton 1989), 2세대는 전통적 기념물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대항기념물(counter-monument) 개념을 제안했다(Young 1992, 2000). 3세대는 기념물의 체험과 활용, 재맥락화에 주목하며 다크 투어리즘 연구를 통해 추도시설의 복합적 기능을 분석했고(Stone 2006; Lennon & Foley 2000; Macdonald 2009), 4세대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SNS, 전시, 퍼포먼스, 시민참여활동 등 무형의 요소가 기념을 구성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Hoskins 2018). 3세대와 4세대 논의를 잇는 지점에서 진행되는 본 연구는 추도시설의 재맥락화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네트워크가 기억의 안정성과 해석의 준거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추도시설이 드러내는 역사인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판 등 무형의 요소가 독일과 베를린에 일정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avid Throsby(2001)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추도시설들이 독일과 베를린에 제공하는 가치의 다층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념공간이 사회적 담론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 자산으로 전환되어, 전통적 유산들과 함께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베를린 도심부의 기념공간을 시간적 축적과 공간적 집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개별 기념공간 분석 및 여러 기념공간이 만들어 내는 도시 경관의 분석은 공간의 물질적 형상, 사회적 기능, 상징적 의미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최병두 2012, 130).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정치적 상황이나 도시 경관의 변화 속에서 기념공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상호 간 해석의 준거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포착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베를린 중심축(운터덴린덴) 일대를 대상으로, ①19세기 중반부터 1910년대까지의 '창조의 기념비화', ②전쟁과 재건기를 거친 '선별·보존의 기념비화', ③통일 이후 새로운 추도시설들이 더해진 '재맥락화의 기념비화'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도심부 기념공간이 정치적 상징에서 사회적 기억으로, 나아가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기억의 장소가 재맥락화되며 의미를 생산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독일이 형성한 문화자본과 국가 이미지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베를린 사례를 통해 도시의 기념공간이 기억과 가치 생산의 순환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 도시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구성틀

본 장에서는 베를린 운터덴린덴 일대의 기억의 장소들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별 기념물의 조형적 특징이나 의미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공간 속에서 공간-기억-가치가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관계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중층적 교차 구조(layered and intersecting structure)로서, 이는 시간적 축적과 공간적 집적이 교차하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지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은 사회적 기억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이고 서로 교차하면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도심과 기억: 공간적 특징과 의미구조

도심(core)은 한 도시의 기능적 중심일 뿐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 구현된 상징적 공간이다(Lynch 1960, 78). 특히 수도의 도심은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행정·정치·문화적 기능이 중첩되어 시대별 지배 담론이 층위를 이루며 축적된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중심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를 서술하고 재현하는 상징적 무대로 작동한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건립한 건물이나 동상 등의 기념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상징을 드러내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집단기억의 산물이라면 서 집단기억을 강화하는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Assmann(2006, 20)은 도심이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이나 주요 건축물이 밀집되어 생겨난 시각적 존재감이 집단기억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대화(in Szene gesetzt) 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며, 도심부 기억의 장소가 사회적 기억을 표현하고 재현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도심부가 기억의 무대로 기능하는 것은 그것이 물리적 구조이면서 동시에 기호적 질서로 이루어진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건축물, 거리 이름, 기념물, 심지어 폐허의 흔적까지 모두 사회적 의미를 담은 기호로 작용하며, 도시 전체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심부 기억의 장소를 분석하는 것은 개별 건축물의 형태를 넘어, 서로 다른 의미와 기억이 얹혀 형성된 기호적 관계망(symbolic relations)을 읽어내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기호적 관계망은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 첫째는 시대별 흔적이 중첩되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적 축적(temporal layering)이며, 둘째는 상징과 제도가 밀집되어 의미의 밀도가 강화되는 공간적 집적(spatial concentration)이다. 이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도심은 단일한 서사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기억의 장으로 변모하며, 사회적 갈등과 담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적 무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의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기억(memory)과 기념(commemoration)이 교차하는 장이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집단적인 재현과 해석의 총체를 의미하며, 기념은 그러한 기억을 물리적·의례적 형식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Connerton 1989). Pierre Nora(1989)의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라는 개념은 이 두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개별 기념물을 넘어 거리, 광장, 건축군 등 복합적 장소성을 지닌 공간 전체를 '기억의 장소'로 제시하였다.

2. 기억의 장소화와 네트워크 형성

기억이 도심부 공간에 새겨지는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집단의 경험과 서사는 특정한 공간에 축적되고, 그 공간은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Nora 1989, 18-20). 그러나 이 과정은 선택적이다. 사회가 특정한 과거를 해석하고 선택하는 방식(Connerton 1989, 59; Assmann 1995, 125-133)은 건축과 조형의 형태로 도시공간 속에서 실체화된다. 그리고 공간화의 과정 속에서 기억은 고정되지 않고, 주변 공간 및 다른 기념물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Macdonald 2009, 1-2; Till 2005, 8).

이러한 과정은 기억의 장소가 단순히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경쟁하고 재배치되는 담론의 장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장소(place)'는 단순한 '공간(space)'과 구별되는데, Tilley(1994, 11)가 지적했듯 장소는 경험과 의미가 축적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국가권력이 기념물을 설치하여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드러내고자 할지라도, 그 의미는 공공의 장에서 협상되고 때로는 전복되기도 한다. Assmann이 지적했듯, 기억의 장소는 과거 해석이 사회적 협상과 토론을 거치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으로 재편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Assmann 2006, 11; Nora 1989, 12).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기억의 장소는 사회적 선택과 권력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19세기 이전 기억의 장소는 주로 왕이나 장군의 조각, 왕궁 같은 권위적 건축물, 전쟁 승리 기념물 등 국가권력과 영웅 서사를 강화하는 상징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기념의 주체가 권력자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하면서 왕이나 귀족을 위한 상징을 대신해 시민과 공동체적 가치를 표상하는 기념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억의 장소를 둘러싼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산업화 및 제국주의 시기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각국 수도에는 국력 과시와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한 대규모 기념물이 건립되고 광장과 도로 등 웅장한 경관이 조성되었다. 이 공간들은 파시즘 시기와 냉전기에는 국민 동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이런 기념물은 영광과 자부심의 상징에서 벗어나 기성 사회질서나 관념을 비판하고 성찰을 촉진하는 장치로 변하고 있다(Krzyżanowska 2015, 470). 이러한 변화에 대해 Young(1993,

5)은 “기념물이 단순한 기억의 저장고에서 벗어나 집단 정체성과 역사 서사를 둘러싼 지속적 협상의 무대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독일이다. 2차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독일은 강한 국력이나 강력한 지도자, 혹은 군사적 승리를 과시하던 기존 수도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이 가진 종래의 의미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과거 왕조적·군사적·제국주의적 기억의 장소를 대체하거나 재맥락화하며, 과거사 극복과 반성적 역사 인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억의 장소들이 도심부에 자리하게 된 것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다.

독일의 전후 기억 문화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억의 장소를 구성하는 기념물(Denkmal) 형식이 다양해지고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전통적인 기념물은 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 이를 영웅, 희생자, 순교자, 승리자 등으로 묘사하던 방식(Koselleck 1979, 256)으로서, 주로 조각상이나 비석 같은 조형적 형태를 지닌 기념비(Monument)의 형태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전후 독일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념물들이 등장하며, 기억의 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념물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추도시설(Gedenkstätte)로서, 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의례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교육적·성찰적 기능을 수행한다(Till 2005, 8-11). 추도시설은 단일 기념물이 아니라 전시관, 문서센터, 기념비, 의례 공간 등을 포괄하는 ‘시설(Stätte)’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베를린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 추도시설(Gedenkstätte Sachsenhausen)은 수용소 유적지 전체를 보존하며 박물관, 기록관, 교육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노이에 바헤(Neue Wache)는 단일 건축물이지만 국가 추도시설(Zentrale Gedenkstätte)로 재맥락화되어 전쟁과 폭정(Krieg und Gewaltherrschaft)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의례 공간으로 기능한다.²⁾

둘째, 경고비(Mahnmal)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경고(Mahnung)와 반성을 목적으로 한다. Knischewski & Spittler(2005, 12)가 지적했듯, 경고비는 ‘가해의 기억’을 다루는 독일 특유의 형식으로, 피해자 추모에 초점을 둔 추도시설과는 구별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셋째, 대항기념물(Gegendenkmal, Counter-Monument)으로서, 전통적인 기념물의 권위를 거부하고 비판적 성찰을 유도한다. Young(1992, 271)은 이를 ‘기억에 대항하는 기억(memory against itself)’으로 정의하며, 함부르크의 ‘파시즘 반대 기념물(Hamburg Monument Against Fascism, 1986)’처럼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거나 변형되도록 설계된 사례를 제시한다. 대항기념물은 기념이 영구적인 것(permanence)이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을 베를린 도심부의 대표적인 대항기념물 사례로 분석한다.

2) 노이에 바헤에 관해서는 정성윤(2017)의 연구를 참고.

그런데 전술한 유형의 기억의 장소들(추도시설, 경고비, 대항기념물)은 도심부에 위치한 역사적 기념물들(왕궁, 개선문, 승전기념비)과 병존하며, 결코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의 장소들은 인접한 다른 장소가 가진 의미나 맥락을 참조하며 나름의 의미와 맥락을 획득한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기념물 역시 새로운 기억의 장소들과 병존하는 가운데 현재적 의미를 획득하고 재맥락화된다. 여러 기억의 장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은 도심 전체를 하나의 기억경관(Memory Landscape)으로 전환한다.

노이에 바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등 20세기 말 이후 베를린 도심부에 새롭게 마련된 기억의 장소들은 각각 다른 집단의 기억을 표상하면서도 상호참조적 구조를 이루며,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정치가 전개되는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처럼 기억의 장소는 개별 공간 내부가 아니라 공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며, 비밀상적이고 이질적인 헤테로토피아의 네트워크가 베를린의 도시 정체성을 규정하는 새로운 대표성으로 작동한다.³⁾

3. 기억의 장소와 가치순환: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이 형성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상징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단순한 보존 대상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과거로부터 전승된 산물이 구성원들에게 유무형의 편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자산(Cultural Asset)으로 평가된다(Throsby 2001). 이러한 관점에서 기억의 장소는 과거의 사건과 기억을 물리적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역사적·상징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정치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Caves 2005, 470), 도시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의 장소가 지닌 가치를 평가할 때 핵심적인 기준은 개별 기념물의 미학적 완결성이나 역사적 희소성이 아니라, 그 공간이 사회적 해석과 논쟁을 통해 획득하는 의미에 있다. 기념물, 나아가 기억의 장소는 자율적 예술품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징체계를 매개로 집단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매체로서 기능한다(Krzyżanowska 2015, 469-470). 이러한 점에서 기억의 장소는 단순한 과거의 표상이 아니라, 사회가 과거를 해석하고 책임지는 방식을 실험하는 공공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⁴⁾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Macdonald(2009)는 독일의 나치 유산 사례를 통해 공동체가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운 과거—가해, 폭력,

3) Foucault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은 사회의 일상적 질서를 비추는 동시에 교란시키며, 정상성과 타자성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의 장소들은 바로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로서, 일상적 공간 질서를 벗어나 사회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장으로 작동한다(Foucault 1984, 46).

4) Macdonald(2009)가 논하는 'Difficult Heritage'는 나치의 과거 같은 어렵고 불편한 역사를 의미하는데, 맥락에 따라 '어려운 유산', '불편한 유산', '논쟁적 유산', '부끄러운 유산' 등으로 번역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도심부 기억의 장소를 '공간-기억-가치(문화자산)' 삼중구조로 논하기 때문에 '불편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였다.

전쟁, 억압과 같은 부정적 유산—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불편한 과거를 미화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된 논쟁을 통해 불편함과 윤리적 긴장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재조정하고 시민사회의 성찰을 촉진시킨다. 여기에서 기억의 장소는 부정적인 기억을 반복하는 장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시민 윤리를 재정립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개념이 논쟁가치(Streitwert; contested value)이다. 일반적으로 기념물은 역사성, 상징성, 예술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산가치(Heritage Value)를 인정받고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며, 이러한 유산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존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산가치가 아니라 논쟁가치에 주목하는 입장에서 볼 때, 논쟁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긍정적 요소이다. Dolff-Bonekämper(2021, 7)에 따르면 기념물의 가치는 그것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 속에서 발생하는 논쟁가치로 (재)규정될 수 있으며, 기억의 장소가 사회적 충동을 가시화하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가치가 강화된다. 여기에서 논쟁가치는 합의된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담론과 갈등 과정을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가치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성찰과 민주적 토론을 촉진한다. Schmitt(2022, 116-118)는 이러한 논쟁적 유산(contested heritage)이 단순히 게 저장기억(Speichergedächtnis)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기억(Funktionsgedächtnis)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기억의 장소를 단순히 과거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시민 윤리를 실천하는 장으로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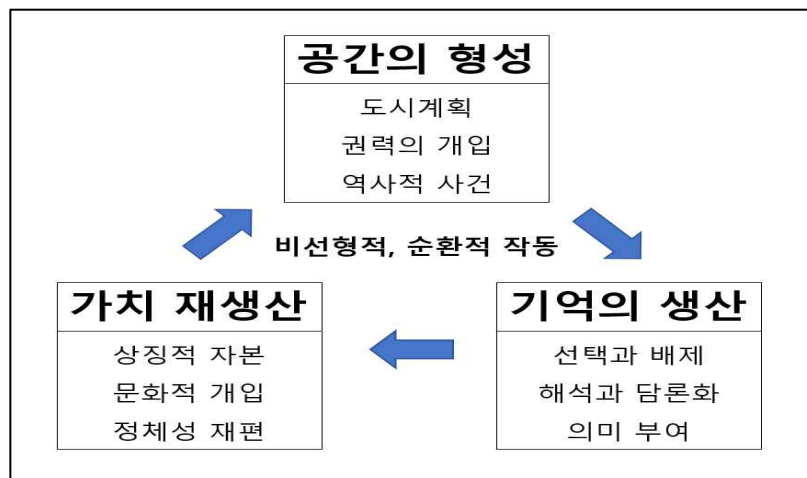
결국 기억의 장소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불편한 과거 유산과 논쟁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성된다. 이 공간들은 불편함과 긴장을 통해 사회적 학습과 토론을 촉진하며, 기억의 윤리와 공공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추도시설, 경고비, 대항기념물 등 새로운 유형의 기억의 장소는 그러한 논쟁적 유산이 도시 차원에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독일의 특수한 상황과 정치적 필요를 바탕으로 조성된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 도심부의 역사적 기념물들과 더불어 도시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기억이 공간적으로 실체화·시각화되어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나아간다. Throsby(2001)는 문화자본을 도시나 공동체 차원에서 축적해온 문화자산으로 정의하는데, 도심부 기억의 장소는 사회가 축적해 온 자산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공공기억의 장이자, 물리적으로 실체화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관광,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즉, 기억의 장소는 공동체 내 반복된 논쟁과 해석을 거치면서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문화자본의 일부가 된다.

4. 기억의 장소의 작동 구조: 공간-기억-가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은 공간-기억-가치의 삼중 구조로 작동하며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공간의 형성은 도시계획, 권력의 개입, 역사적 사건이 얹혀 만든 물리적 기반이고, 기억의 생산은 사회가 과거를 선택·배제하고 해석하며 담론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치 재생산은 그 공간이 상징적·문화적 자본으로 전화되는 단계이다. 세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맞물리며, 도심부 기억의 장소를 정태적 조형물이 아닌 의미와 가치의 회로로 만든다.

[그림 1] 도심부 기억의 작동 구조: 공간-기억-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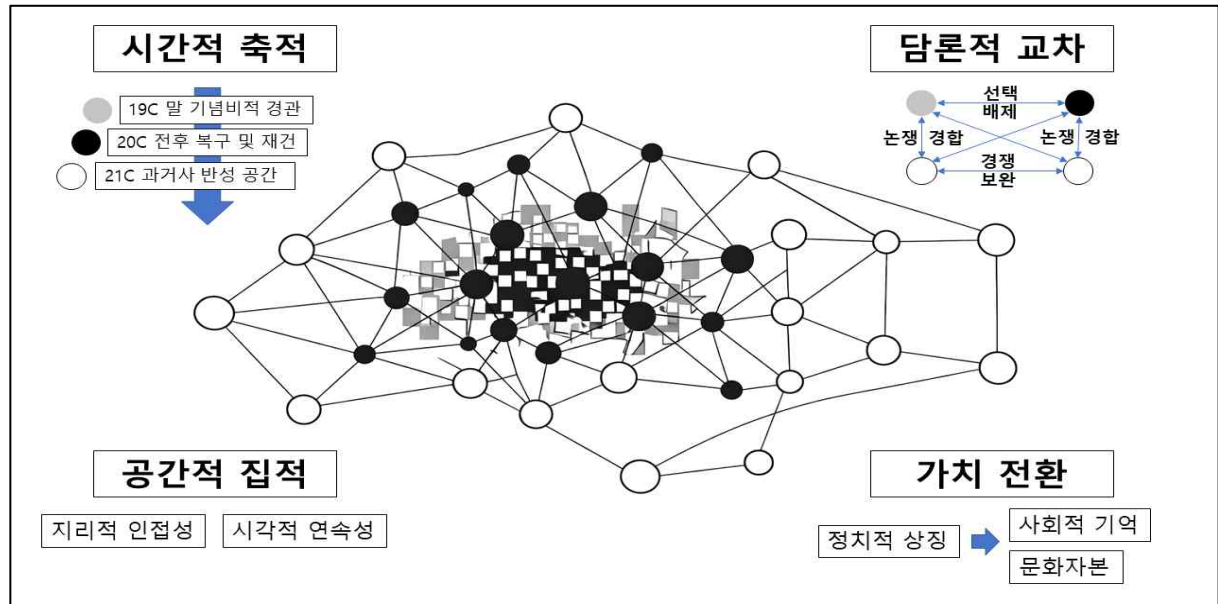


이러한 순환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첫째, 시간적 축적(temporal accumulation)은 각 시대의 정치적 의도와 기억이 공간에 중첩되고, 이후 시대가 이를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둘째, 공간적 집적(spatial concentration)은 도심부에 밀집한 기념물과 기억의 장소들이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상호참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미의 확산과 증폭을 낳는 현상이다. 셋째, 담론적 교차(discursive intersection)는 개별 공간의 의미가 네트워크 속에서 다시 맥락화되며, 논쟁과 경합, 보완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넷째, 가치 전환(value transformation)은 정치적 상징이 사회적 기억으로, 다시 도시의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단계다.

이 네 차원은 서로 얹혀 도시의 기억을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구조를 이루며, 그 속에서 도심부 기억의 장소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재편한다. 기억의 장소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도심 곳곳에 점(point)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념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연관시켜서 도심부를 기억 경관(Memory Landscape)으로 전환시킨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 분석 틀은 이후 제3장에서 베를린 도심부의 역사적 변동을 추적하고, 제4장에서 통일 이후 기억 장소의 재맥락화 과정을 분석하는 해석적 전제로 작동한다.

[그림 2] 순환 구조의 작동 방식: 네 가지 차원



III.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의 형성과 변동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한 기억의 장소들은 단일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약 150년에 걸친 건축적 축적과 복원, 그리고 공간의 사회적 재구성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한 분석 틀(시간적 축적, 공간적 집적, 담론적 교차, 가치 전환)에 따라, 본 장은 도심부가 어떻게 기억의 장소로 형성되고 변모했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째, 19세기 중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제국의 권력을 표상하는 기념물 건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다(1단계: 도심부의 기념비화). 둘째, 전쟁과 냉전기 동안 파괴된 공간을 선별적으로 재건·보존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공간에 새긴 시기다(2단계: 기념물의 선별·재건·보존). 셋째, 통일 이후 새로운 유형의 기억의 장소들이 더해지며 기존 공간의 의미를 재맥락화한 시기다(3단계: 기념물의 재맥락화).

Goebel(2003)이 지적했듯, 베를린 중심부는 “근대적 도심부로의 변모와 해체, 그리고 불완전한 재조립의 반복”을 겪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대 구분은 도시경관 변화를 시간의 축으로 읽어내기 위한 분석 틀이며, 각 단계에서 공간-기억-가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1. 역사적 전사: 베를린 왕궁 및 도심부 경관의 형성

17-18세기 베를린은 왕궁(Berliner Schloss)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1701년 프리드리히 1세의 대관 이후 왕궁에서 서쪽으로 1.5km 가량 이어지는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거리가 도심의 핵심 축선으로 조성되었다(Goebel 2003, 9-10). 이 축을 따라 왕궁 인접 지역에는 무기고(1706 완공)와 국립오페라(1743 완공)가, 축의 서쪽 끝에는 도시 경계를 표시하는 브란덴부르크문(1791 완공)이 건립되었다. 18세기 후반 프리드리히 2세 시기에는 왕립도서관(1780 완공) 등 학술기관이 더해지며 왕권과 계몽의 결합을 상징하는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림 3] 베를린 운터덴린덴의 약도



Friedrich Schinkel은 19세기 초 이 지역에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들을 건립하였다.⁵⁾ 그는 운터덴린덴 축을 중심으로 왕궁 동쪽의 루스트가르텐(Lustgarten)과 슈프레 강변을 연결하는 도시 경관을 계획하였다(Bergdoll 1994, 215). 그에 따라 왕궁 맞은편에 노이에 바헤(Neue Wache, 1818 완공), 루스트가르텐에 알테스 뮤지엄(1830 완공), 그 남쪽에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 1821 완공)를 배치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Gesamtkunstwerk)으로 조직했다. Schinkel에게 기념물은 ‘권력의 표상’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이 만나는 공공적 상징의 매개체’였다(Bergdoll 1994, 215). 이는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 될 도심 기념비화 작업의 미학적·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2. 1단계: 도심부의 기념비화(1850-1910)

19세기 중반 이후 베를린에서는 대규모 기념물 건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 1871년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제국이 성립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도심부 곳곳에 기념물을 건립하여 제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웅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핵심 목표였다. 운터덴린덴 축을 중심으로 승전기념비(Siegestsäule, 1873 완공), 제국은행(Reichsbank, 1876 완공), 붉은 시청사(Rotes Rathaus, 1869 완공), 베를린 돔(Berliner Dom, 1905 완공) 등이 건립되었다.⁶⁾ Goebel(2003, 49)은 1910년경 베를린이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근대화와 기념비화를 동시에 달성한 상태(baulich wie funktional modernisiert und monumentalisiert)”였다고 평가한다.

1850년에서 1910년에서 사이의 도심 기념비화 작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공간적으로는 왕궁을 기점으로 박물관 섬(Museumsinsel)과 운터덴린덴을 잇는 축선이 제국 권력을 표상하는 핵심 경관으로 완성되었다. 둘째, 기능적으로는 국가기관, 문화시설, 종교시설이 집중 배치되며 행정·문화·상징의 중심이 형성되었다. 셋째, 프로이센이 덴마크(1864), 오스트리아(1866), 프랑스(1871)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해 건설된 전승기념탑(Siegestsäule)을 정점으로 하여, 전쟁 승리와 제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기념물들이 도심부 주요 지점에 자리잡았다. Koshar(2000, 57)가 지적했듯, 이 시기 베를린 도심은 도시 공간 자체가 제국의 역사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공간화된 기억 장치(spatialized memory apparatus)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5) Schinkel은 1815년 프로이센 왕립 건축감독관으로 임명되어 1841년까지 베를린의 공공건축을 총괄했다. 그의 재임 기간은 프로이센이 나폴레옹 전쟁의 패배에서 벗어나 국가 정체성을 재구축하던 시기였다. 군사적 승리를 과시할 수 없었던 프로이센은 ‘문화국가(Kulturstaat)’로서의 정당성을 건축과 예술을 통해 표상하고자 했고, Schinkel의 고전주의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이었다(Bergdoll 1994, 201-203).

6) 베를린 도심의 기념물 건립은 파리의 오스만 재개발(1853-1870), 런던의 빅토리아 기념물 건설(1901-1911)과 같은 유럽 주요 수도의 도시 재편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Hall 1998, 709-715). 19세기 유럽 수도들은 자본축적과 국가 권력을 공간적으로 가시화하는 ‘세계도시(world city)’ 경쟁에 참여했으며, 베를린의 기념비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Harvey 1985, 63-89).

그러나 이 시기의 기념비화는 '제국적 기념비화'였다는 점에서, 기억(memory)보다는 권위(authority)의 건축적 연출에 가까웠다. 공간은 권력을 재현하는 수단이었으며, 이 시기의 기념물들은 이후 시대에 '기억의 대상'이자 '재맥락화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기반으로 남게 된다.

191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는, Goebel에 따르면 도시 경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다.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가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 성과 없이(folgenlos) 종료된 탓이 컸다(Goebel 2003, 58). 다만 나치 시기 운터텐린덴 일대의 건축물들은 전쟁 동원과 선전을 위하여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이에 바헤로, 이 건물은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에 맞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기념비로서 건설된 이후 왕궁 진입로 일대의 감시 초소라는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1차대전 당시에는 국민 동원명령 및 동원명령 해제를 선언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1차대전 종전 후에는 전몰장병 추도소로 개조되었고, 나치 시기에는 전몰장병 현창(Ehrung)에 활용되었다(정성윤 2017). 그러나 이 시기의 변화는 주로 내부 개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건물 외관 및 도시경관 측면의 변화는 제한적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 2단계: 기념물의 선별·재건·보존(1945-198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 도심부는 기념비적 경관을 상실했다. 수많은 건축물이 파괴되었고, 전후 복구 및 복원 과정에서 경제적 실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Goebel(2003, 123)은 이를 역사적 중심부의 “무계획적 재편(Stadtveränderung ohne Konzept)”이라 평가하며, 중세 시대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축물조차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 베를린의 도시계획은 새로운 건축을 통한 의미 창출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별적 과정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분단된 수도의 양측은 각각 독자적인 기념 대상, 서사구조, 추모의례를 규정하였고, 동·서베를린에 위치한 기억의 장소들을 체제의 정당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활용했다. 동베를린의 노이에 바헤가 대표적 사례다. 노이에 바헤는 왕실 경비초소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추도시설로 변모했으나, 동독 시기에 다시 ‘파시즘과 군국주의 희생자를 위한 추도시설’(1960)로 재맥락화되었다.⁷⁾ 동독은 옛 왕궁을 비롯한 프로이센 건축 유산을 ‘봉건 잔재’로 규정하며 복원을 포기하거나 철거했으나, 반파시즘 서사에 부합하는 건축물은 선택적으로 보존했다(Macdonald 2013, 78-82). 이처럼 동독의 도시정책은 물리적 복원보다 상징적 재배치와 선별적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 ‘기념’은

7) Till(2005, 67-98)은 노이에 바헤의 개조가 ‘반파시즘 신화(antifascist myth)’를 도시 공간 속에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분석한다. 동독 정권은 나치즘을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이 파시즘과 무관하다는 서사를 구축하고자 했다. 노이에 바헤는 이러한 이념적 프로젝트가 물질화된 공간이었다.

더 이상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재편하고 정당성을 구축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동독의 선별적 기념비화는 과거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편성하는 과정이었다.

서베를린 역시 선별적 보존을 진행했으나 그 방향은 달랐다. 1950년대 이후 경제 재건과 교통 효율성이 도시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면서, 역사적 건축 유산은 개발 논리에 따라 희생되었다. 도심은 기억의 공간(Gedächtnisraum)이 아니라 효율의 공간(Effizienzraum)으로 전환(Goebel 2003, 126)되었던 것이다. 한편 Ladd(1997, 189-215)는 서베를린의 도시재건을 “기억의 소거(erasure of memory)”로 규정한다. 서베를린은 과거 프로이센 유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대신 현대적·기능주의적 도시상을 구축했다. Ladd(1997, 195-203)는 이를 “과거와의 의도적 단절(deliberate rupture from the past)”로 규정하며, 서베를린이 제국 시대의 도시 경관을 계승할 수 없었던 정치적·심리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동독이 사회주의 서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기억의 장소를 보존했다면, 서독은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거치며 선별적으로 기억의 장소를 삭제했다. 양측 모두 전쟁 이전의 기념비적 도시 경관을 직접 계승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부정의 기념비화(monumentalization by negation)’를 수행한 셈이다.

그 결과, 베를린 도심부는 전쟁 이전에 형성한 단일한 상징적 질서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파괴와 복원, 보존과 철거가 반복적으로 교차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여러 시대의 기념물이 중첩된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전후 베를린에서 기억의 장소가 재구성된 과정은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과 보존 범위를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이었다. 동·서독은 각기 다른 이념적 우선순위와 서사에 따라 특정 건축물은 보존하고 다른 요소는 비가시화하며 도심부 공간구조를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통일 이후 베를린이 직면하게 된 기억정치적 복잡성을 형성한 기반이었다.

4. 3단계: 기념물의 재맥락화(1990 이후)

통일 이후 베를린 도심부는 과거사 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이라는 과제를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했다. 동독 시기 ‘파시즘과 군국주의 희생자’를 위한 추도시설로 재맥락화되었던 노이에 바헤는 1993년 재정의되어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Opfer von Krieg und Gewaltherrschaft)’을 위한 중앙 추도시설(Zentrale Gedenkstätte)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추도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핵심 쟁점은 ‘누구를 추도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1980년대 헬무트 콜 정권 하에서 독일 우파들은 독일인 역시 전쟁의 희생자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무고한 독일인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실현시키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노이에 바헤를 통해 완성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대인 단체들은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나치 가해자(독일인 전사자)를 동일한 공간에서 추도하는 것에 반발했고, 이는 별도의 추도시설 건립 요구로 이어졌다(Till 2005, 165-178).⁸⁾ 통일 독일은 노이에

바해가 상징하는 추도의 포괄성이 오히려 특정 집단의 고통을 비가시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2005 완공),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2012 완공) 등 구체적 피해 집단을 위한 추도시설을 도심부에 연속적으로 건립했다.

이 시기 기억의 장소들은 과거 건축 유산을 복원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억의 층위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병치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운터덴린덴 축의 남쪽,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2,711개의 콘크리트 석판(Stelen)이 늘어서서 종래의 기념비 형식과는 새로운 형태의 기념비로 자리잡았다.⁹⁾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은 연방의회(Bundestag) 남쪽 티어가르텐 내에 자리하며, 수면이 있는 원형 공간에 단 하나의 삼각형 돌만을 배치하여 침묵과 부재를 표현한다.¹⁰⁾ 이처럼 새로운 대항기념물들은 과거사 책임과 반성을 다루는 조형물이지만, 전통적 추모비와 달리 영속성, 명료함,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함, 혼란, 지속적 질문을 유발한다. Krzyżanowska(2015, 470)는 이러한 전환을 “기념물이 영광과 자부심의 상징에서 벗어나,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성찰을 촉진하는 장치로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추도시설들의 가치는 전통적인 유산가치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롭게 마련된 추도시설들은 그 공간의 역사나 전통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이 아니다. Macdonald(2009, 4)는 이를 “역사적 장소성(Historic Siteness)이 아니라 윤리적 성찰(ethical reflection)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공간”이라 규정한다. 이들 대항기념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존 기념물(특히 운터덴린덴 일대에 위치한 독일 제국 시대의 기념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 이런 ‘제국기념물’과 대항기념물의 공간적 병치는 도심부 경관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19세기 제국기 건립된 승전기념비, 베를린 대성당, 브란덴부르크문이 상징하는 승리, 영광, 민족, 국가, 권위, 영속성과 대항기념물이 상징하는 범죄, 희생, 사죄, 반성, 추모, 불완전성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바로 대조 속에서 양자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제국기념물의 전통적 상징성이 강하고 선명한 만큼, 대항기념물이 제기하는 윤리적 질문도 날카롭게 부각된다. 노이에 바해가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추도 대상을 설정한다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유대인’이라는 구체적 피해 집단을 명시한다. 전자가 Schinkel의 신고전주의

8) 노이에 바해 재설계를 둘러싼 논쟁은 1993년 Akademie der Künste가 편찬한 *Streit um die Neue Wache*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독일 유대인 중앙위원회(Zentralrat der Juden)는 케테 콜비츠의 조각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Mutter mit totem Sohn)》가 기독교적 피에타 도상을 차용하여 유대인 희생자를 적절히 표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단일 추도시설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피해 집단별 별도 추도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켰다(Akademie der Künste 1993; Young 1993, 27-48).

9)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건립은 1988년 시민단체 제안으로 시작되어 17년간의 논쟁 끝에 2005년 완공되었다. 설계 공모(1994)에서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의안이 선정되었으나, 보수 정치인들은 “독일인에게 수치심만 주는 기념물”이라 반대했고, 일부 예술가들은 “희생자를 추상화하여 비인간화한다”고 비판했다. 건립 과정 자체가 독일 사회의 기억정치를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10)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건립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보다 더 긴 투쟁의 결과였다. 신티와 로마 공동체는 1980년대부터 독립적 추도시설을 요구했으나, 독일 정부는 이들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적으로 조성된 추도비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형식을 취하여, 신티·로마 학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나치 범죄의 전체 구조 속에 위치시킨다.

건축 내부에 조각을 배치한 전통적 형식이라면, 후자는 건축적 형식 자체를 해체한 대항기념물이다. 이 두 공간의 근접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기억 정치를 둘러싼 긴장을 공간적으로 가시화한 결과다(Till 2005, 203-207).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역시 연방의회 건물과 승전기념탑이라는 제국기념물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승리했고, 누가 희생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제기한다.

이러한 재맥락화는 베를린의 도시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세기 제국 수도로서 베를린은 군사적 승리와 국력을 과시하는 도시였으나, 통일 이후 베를린은 과거사 성찰과 윤리적 책임을 표상하는 도시로 재정의되었다. 도심부 경관은 더 이상 단일한 국가 서사를 전달하지 않고, 가해와 피해, 권력과 저항, 기억과 망각의 긴장을 동시에 드러낸다. Nora(1989, 19)가 지적했듯, 기억의 장소는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공간이며, 베를린 도심부는 이러한 관계 재구성을 가장 극적으로 수행한 사례다. 국제사회에서 베를린은 ‘과거를 직시하는 도시’, ‘책임지는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Levy & Sznaider(2002, 87-106)는 홀로코스트 기억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담론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며, 독일이 이 과정에서 도덕적 신뢰를 획득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독일의 국가 이미지 재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Olick 2007, 3-18; Art 2006, 265).¹¹⁾

이러한 공간들은 사회적 담론과 교육의 차원을 넘어 관광경제적 가치로도 전환되었다. 통일 이후 추도시설의 조성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새로운 경제 섹터를 창출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재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Information Centre 방문객만 약 48만 명에 달하며, 야외 기념비는 베를린 방문객 대다수가 경유하는 필수 경로로 자리잡았다(Stiftung Denkmal 2025).

결과적으로 베를린의 도심부는 세 시기의 기념비화 과정이 중첩된 ‘기억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19세기의 기념물들은 제국의 권력과 국가 표상을 시각화하고, 전후의 잔존 건축물들은 단절과 파괴의 경험을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통일 이후 조성된 추도시설들은 과거의 폭력과 가해 책임에 대한 윤리적 성찰(공적 성찰)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이 세 시기의 기억의 장소들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병치되어, 도시 전체를 시간적 층위가 겹쳐진 기억 경관으로 만든다. 각 시대의 기념물들이 파편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미를 지탱하고 반사하면서 집합적 기억의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중첩적 기념비화의 과정은, 공간이 기억을 저장하는 수동적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장(場)임을 보여준다.

11) Art(2006, 257-284)는 독일의 과거사 대응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필수적 자원이었으며, 베를린의 추도시설들이 이러한 진정성을 가시적으로 증명했다고 설명한다. Olick(2007, 3-18)은 독일의 과거사 대응을 “부정적 국가주의(negative nationalism)”로 규정한다. 전통적 국가주의가 자국의 영광과 위대함을 강조한다면, 독일은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도덕적 신뢰를 획득하는 역설적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자본으로 작동했다.

IV. 기억의 장소의 재맥락화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베를린 도심부 기억의 장소들은 개별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의 층위가 겹치며 만들어진 의미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시간적으로는 각 시대의 정치적 맥락을 반영하고, 공간적으로는 지리적 근접성과 시각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시간적 축적과 공간적 집적은 개별 시설의 상징성을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억 장치'로 기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본 장에서는 기억의 장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과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본다.

1. 기억의 장소의 시공간적 집적과 의미의 층위

운터덴린덴 일대는 베를린 도심부의 역사적 핵심축이자 기억의 장소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18세기의 왕궁과 성당, 19세기 제국 시대의 기념비, 20세기의 전몰장병 추모시설 그리고 21세기의 반성적 기억을 표상하는 공간이 모두 이 축선상에 자리한다. 공간의 시간적 층위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각 장소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포하지만, 그 물리적 근접성이 상호참조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예컨대 노이에 바헤(Neue Wache)는 19세기의 군사적 승전 기념에서 출발해, 동독 시기의 반파시즘 추모시설을 거쳐 통일 이후에는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추모시설'로 재정의되었다.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이 있으며, 이들 공간은 노이에 바헤와 대화하듯 배치되어 있다. 각 장소는 개별적으로는 모호하거나 한정된 메시지를 지니지만, 집합적으로는 보다 명확한 역사 인식을 구성한다. 이는 마치 의미의 삼각측량(triangulation of meaning)처럼, 각 점이 서로를 규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러한 집적은 해석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온다. 개별 장소의 정치적 편향이나 해석상의 모호함이, 주변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완화되거나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노이에 바헤가 국가의 책임을 상징한다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은 주변부의 고통을 드러낸다. 이처럼 다성적 기억의 공간들은 서로의 의미를 보완하고, 때로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만든다. 이러한 구조는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성의 병치'를 넘어, 이질성의 상호작용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의 사회적 작동: 기억 경관의 형성

이처럼 기억의 장소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단순히 물리적 인접성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과 방문객은 운터텐텐 일대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기억의 장소와 마주친다. 그 경험은 단일한 기념물 앞에서의 ‘의례적 추모’가 아니라, 일상적 동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성찰이다. 즉, 기념의 장소들은 더 이상 특정한 정치 행위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적 윤리와 역사인식이 일상 속에서 재생산되는 장소로 전환된 것이다.

운터텐텐 일대의 추도시설들은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경로를 형성한다. 노이에 바헤, 브란덴부르크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로마 추모비, 그리고 토포그래피 데스 테러스(Topographie des Terrors) 등이 서로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 위치하며, 방문객은 이 일대를 걷는 과정에서 베를린 도심 공간에 중첩되어 드러나 있는 전쟁, 폭력, 분단, 화해의 역사적 층위를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¹²⁾ 이는 추상적 도덕 교훈보다 더 강력한 공간적 학습(spatial learning)의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을 형성한다. 노라가 말한 ‘기억의 장소’가 고정된 단일 지점을 의미했다면, 베를린의 경우에는 장소 간의 관계와 움직임 속에서 기억이 구성된다. 이곳의 기억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점과 선이 엮인 폴리포닉(polyphonic) 구조로 작동한다. 서로 다른 시대의 기억의 장소들이 하나의 도시적 서사로 엮이면서,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은 ‘성찰하는 도시’로 재정의되었다.

3. 문화자본으로의 전환: 기억의 경제와 도시 브랜드

기억의 장소들의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Throsby(2001, 28-43)는 문화자본을 “미래 세대에 문화적 편익의 흐름을 제공하는 문화적 가치의 자산”으로 정의하며, 이것이 유형적 형태(건축물, 예술작품)와 무형적 형태(관습, 가치, 신념)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베를린 도심부는 이 두 층위가 중첩된 복합적 문화자본을 형성한다. 왕궁, 박물관섬 등 전근대 건축유산이 지닌 전통적 역사성과 2000년대 이후 구축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12)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 호모섹슈얼 메모리얼, 인락사 희생자 메모리얼 등을 관할하는 Stiftung Denkmal für ermordeten Juden Europas에서는 재단이 담당하는 기념물들에 대한 도보 가이드 투어(Guided Tour)를 제공하고 있다. ‘기억의 경관으로서의 베를린 (Berlin as a landscape of remembrance)’이라는 이름의 이 투어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도심의 기념물들을 도보로 답사하며, 참가자에게 장소의 연원이나 기념물의 목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념물이 어떤 대상을 다루고 있고 누구를 다루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기념물들이 도심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나치 과거사가 오늘날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https://www.stiftung-denkmal.de/en/offers/city-walk-berlin-as-a-landscape-of-remembrance/> (Accessed Dec. 30, 2025)

등 성찰적 공간이 동일 축선상에 병치되면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윤리적 성찰의 장으로서의 가치가 상호 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교육, 관광, 도시마케팅의 측면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베를린을 방문해 최소 하나 이상의 추도시설을 경유한다.

Caves(2000, 3-18)는 문화산업이 지닌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 속성, 즉 사전에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성적 기억을 표상하는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들은 건립 당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도시의 핵심 문화자산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문화자본이 즉각적 시장 거래가 아닌 사회적 인정과 담론 축적을 통해 형성됨을 보여준다.

베를린시 관광위원회 보고서(visitBerlin 2025)에 따르면 2019년 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169억 유로로, 이는 베를린 GDP의 3.2%에 해당하는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Novy와 Colomb(2013, 1820-1822)은 베를린시의 도시 관광전략에서 기억의 장소가 '책임 있는 수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핵심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베를린은 창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는 이러한 도시 브랜딩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 Colomb(2012, 140-145)는 베를린이 '기억 관광'과 '창조 경제'를 결합하여 독특한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냈으며, 기억의 장소들이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라는 상징자본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했다고 분석한다.

베를린의 문화자본은 단순히 도시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으로도 작동한다. Art(2006, 257-284)는 독일의 과거사 대응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필수적 정치자본이었으며,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들이 이러한 진정성을 가시적으로 증명했다고 설명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같은 공간들은 독일이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물적 증거로 기능한 것이다.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는 바로 이 부정적 국가주의의 물리적 구현이며, 이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자본이자 정치적 자본으로 작동했다. 독일 총리들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방문하고, 외국 정상들이 노이에 바헤에 헌화하는 의례는 단순한 추도 행위가 아니라 독일의 도덕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다.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들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문객들은 이 공간에서 단순히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체감하고 윤리적 성찰을 경험한다. 이는 문화자본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윤리적 긴장을 수반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나 신티와 로마 메모리얼이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는 현상은 '고통의 상품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개념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환기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과 비판, 시민토론, 학술포럼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억의 윤리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논쟁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 역시 가능하다.

그 결과 베를린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를 성찰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과정은 베를린이 “기억의 수도(Capital of Memory)”로 불리게 된 배경이며,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가 도시 브랜드로 기능하게 된 핵심 요인이다. 동시에 이는 베를린의 문화자본이자 독일의 정치자본으로, 도시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을 동시에 관통하는 이중적 가치 구조를 형성한다.

요컨대,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의 장소들은 개별적 건축물의 미학적 가치를 넘어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자본으로 기능한다. 그들은 과거의 비극과 권위, 폭력의 흔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기억의 윤리를 공유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다층적 전환 과정은 도시가 스스로를 중층적, 교차적 기억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IV. 결론: 중층적 기억과 문화자본의 구조

본 연구는 베를린 도심부의 기념공간을 공간 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기념비화(Monumentalisierung)의 과정을 창조(1850-1910), 선별·보존(1945-1989), 재맥락화(1990-현재)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기념공간이 정태적 유산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변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동적 구조물(dynamic construct)임을 확인하였다. 각 시대의 정치적 필요와 이념적 정당성은 공간의 창조와 선별을 결정했으며, 통일 이후 베를린은 이러한 이질적 층위들을 재맥락화하여 다층적 기억이 공존하는 기억의 경관(Memory Landscape)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 틀은 공간-기억-가치의 삼중 구조로 요약된다. 공간의 형성은 도시계획, 권력, 역사적 사건이 얹혀 만든 물리적 기반이며, 기억의 생산은 사회가 과거를 선택·배제하고 해석하며 담론화하는 과정이고, 가치의 재생산은 그 공간이 상징자본에서 문화자본으로, 나아가 정치자본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 세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작동하며, 네 가지 차원—시간적 축적(temporal accumulation), 공간적 집적(spatial concentration), 담론적 교차(discursive intersection), 가치 전환(value transformation)—을 통해 구체화된다.

베를린 사례의 특수성은 이러한 네 차원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19세기의 권력적 공간, 20세기의 이념적 공간, 21세기의 성찰적 공간이 물리적으로 병치되면서, 각각의 장소가 서로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병치는 우연한 공존이 아니라 의미의 몽타주적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화의 몽타주가 개별 쇼트의 병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듯, 베를린 도심부는 서로 다른 시대와 담론이 얹힌 장소들이 병치되며 단일 공간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집합적

의미를 창출한다. 제국기념비가 상징하는 승리와 권위, 추도시설이 드러내는 희생과 반성은 대립하면서도 상호참조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 긴장 구조 자체가 베를린의 기억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이론적 기여를 제공한다. 첫째, 기억 연구(memory studies)와 도시 연구(urban studies)를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통합하였다. 기존 연구가 기념공간을 주로 상징적 차원이나 담론적 차원에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Throsby(2001), Caves(2000)의 문화자본 이론을 결합하여 상징자본이 문화자본 및 정치자본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실증하였다. 둘째, 개별 기념물이 아닌 기념공간의 네트워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공간들 간의 상호작용이 의미를 생성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셋째, 베를린은 20세기 이후 기억 담론과 추도시설 조성에서 이론과 실천을 선도한 지역으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대항기념물, 불편문화유산 등 새로운 기념 양식이 실험되고 확산된 중심지이다. 따라서 베를린 사례 분석은 단일 도시에 대한 사례 연구를 넘어, 현대 도시의 기억 정치와 문화자본 형성에 관한 확장 가능한 문제제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른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도시들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시기와 관련된 장소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정책은 전통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물리적 쇄신과 지역 가치 상승에 집중해왔으며, 기존 공간의 보존과 의미 부여를 통한 가치 창출 방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베를린 사례는 재개발이라는 물리적 갱신 없이도, 기존 공간의 유지·보존과 네트워킹, 그리고 사회적 담론을 통한 의미 재구성만으로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적 장소의 활용에 있어 파괴와 재건이 아닌 재맥락화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대안적 경로를 제시하며, 한국 도시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화운동기념관), 구 전남도청 등 국가폭력의 현장을 복원하고 전시·교육 기능을 통합한 복합 공간의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념공간 건립이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공간에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베를린은 상대적으로 작고 소박한 개별 공간들을 통해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며, 이들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반전과 평화라는 공유된 인식을 구축한다. 공간의 규모, 스타일, 기념 대상, 운영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은 희생자를 기억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윤리적 고민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거대 국책사업 중심의 한국 기념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베를린의 기억의 장소 네트워크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맥락, 특히 과거사 극복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 속에서 형성되었다. Art(2006)와 Olick(2007)이 지적했듯, 독일의 과거사 대응은 유럽통합과 국제사회 복귀라는 구체적 정치적 필요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나 도시가 동일한 경로를 따를 수 없는 특수성을 구성한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도심부의 공식적 기념공간에 집중하였으며, 주변부나 비공식적 기억의 장소,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억 실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베를린 모델의 이식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한 서로 다른 시대의 기념물들이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상호 해석의 준거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역사수정주의나 극우적 해석을 억제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형 기억 생산이 활성화될 경우, 물리적 공간이 제시하는 역사 해석의 영향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맥락이 탈각된 이미지나 서사가 유통되고, 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유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을 아우르는 기억의 다중매체적 거버넌스(multi-platform governance)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시민참여의 개방성과 역사적 사실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할 윤리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공적 기억(public memory)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후속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결국 베를린 도심부의 기억의 장소들은 고정된 상징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이 중첩된 층위들이 교차하며 구성한 중층적 기억의 경관이다. 공간은 기억을 저장하는 수동적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장(場)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징은 사회적 기억으로, 사회적 기억은 문화자본으로, 문화자본은 다시 도시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치자본으로 전환된다. 베를린은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 도시가 역사와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실험장임을 보여주며, 본 연구는 그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전진성. 2012. 「통일독일 수도 베를린의 발명 - 도시공간의 형성과 기억의 도구화에 관하여」. *대구사학* 106: 1-32.
- 정성윤. 2017. 「독일 국립추도시설 '노이에 바헤'의 보편성과 특수성 : '일반 희생자 추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두. 2012.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2(4): 92-135.
- Akademie der Künste (ed.). 1993. *Streit um die Neue Wache: Zur Gestaltung einer zentralen Gedenkstätte*. Berlin: Akademie der Künste.
- Art, David. 2006. "The Politics of the Nazi Past in Germany and Austria."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41(2): 265-283.
- Assmann, Aleida. 1995.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H. Beck.
- Assmann, Aleida. 2006.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C.H. Beck.
- Bergdoll, Barry. 1994. *Karl Friedrich Schinkel: An Architecture for Prussia*. New York: Rizzoli.
- Caves, Richard E. 2005. "The Economics of Cultural Goods." In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edited by Victor A. Ginsburgh and David Throsby, 469-473. Amsterdam: Elsevier.
- Connerton, Paul.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lff-Bonekämper, Gabi. 2021. *Der Streitwert der Denkmale: Berliner Texte 2009-2019*. Berlin: Urbanophil.
- Foucault, Michel. 1984. "Of Other Spaces: Utopias and Heterotopias." *Architecture/Mouvement/Continuité*, October.
- Goebel, Benedikt. 2003. *Der Umbau Alt-Berlins zum modernen Stadtzentrum*. Berlin: Gebr. Mann Verlag.
- Hall, Peter. 1998. *Cities in Civilization*. New York: Pantheon Books.
- Harvey, David. 1985. *The Urbanization of Capital: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Capitalist Urbaniz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oskins, A. (ed.) 2018. *Digital memory studies: Media pasts in transition*. Routledge.
- Knischewski, Gerd, and Ulla Spittler. 2005. "Remembering the Past: The Role of Commemoration in Contemporary Germany." *German Life and Letters* 58(1): 8-23.
- Koselleck, Reinhart. 1979. "Kriegerdenkmale als Identitätsstiftungen der Überlebenden." In *Identität*, edited by Odo Marquard and Karlheinz Stierle, 255-276. München: Fink.
- Koshar, Rudy. 2000. *From Monuments to Traces: Artifacts of German Memory, 1870-199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zyżanowska, Natalia. 2015. "The Discourse of Counter-monuments: Semiotics of Material Commemoration in Contemporary Urban Spaces." *Social Semiotics* 26(5): 465-485.
- Ladd, Brian. 1997. *The Ghosts of Berlin: Confronting German History in the Urban Landsc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nnon, J., & Foley, M.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Continuum.
- Levy, Daniel, and Natan Sznaider. 2002. "Memory Unbound: The Holocaust and the Formation of Cosmopolita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1): 87-106.
- Lynch, Kevin.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 Macdonald, Sharon. 2009. *Difficult Heritage: Negotiating the Nazi Past in Nuremberg and Beyond*. London: Routledge.
- Macdonald, Sharon. 2013. *Memorylands: Heritage and Identity in Europe Today*. London: Routledge.
- Nora, Pierre.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7-24.
- Novy, Johannes, and Claire Colomb. 2013. "Struggling for the Right to the (Creative) City in Berlin and Hamburg: New Urban Social Movements, New 'Spaces of H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5): 1816-1838.
- Olick, Jeffrey K. 2007. *The Politics of Regret: On Collective Memory and Historical Responsibility*. New York: Routledge.
- Schmitt, Thomas. 2022. "From Storage Memory to Functional Memory: The Role of Contested Heritage in Urban Spaces." *Heritage & Society* 15(2): 115-133.
- Stiftung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2025. "A Visible Sign – 20 Years of the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Press Release <https://www.stif->

tung-denkmal.de/en/latest-news/a-visible-sign-20-years-of-the-holocaust-memorial-in-berlin/ (accessed May 6, 2025)

- Stone, P. R. 2006.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 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s and exhibitions." *Tourism: An Interdisciplinary International Journal* 54(2): 145-160.
- Throsby, David. 2001.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l, Karen E. 2005. *The New Berlin: Memory, Politics,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illy, Christopher. 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Places, Paths and Monuments*. Oxford: Berg.
- visitBerlin. 2025. "An economic factor for Berlin – the tourism and convention industry." <https://about.visitberlin.de/en/economic-factor-berlin-tourism-and-convention-industry/> (accessed Oct 30, 2025)
- Young, J. E. 2000.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 Young, James E. 1992. "The Counter-Monument: Memory against Itself in Germany Today." *Critical Inquiry* 18(2): 267-296.
- Young, James E. 1993.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